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7, 해석의 역사 – 베이컨과

칸트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우리는 해석학이나 성경 해석에 대한 역사적 영향을 논의해 왔고, 마지막 세션에서 우리는 해석이 20세기나 21세기 학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성서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지만 해석은 구약성서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성서 안에서도 우리는 후대 작가들이 이전 본문을 선택하고 채택하고 해석하고 활용하여 청중을 위해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구약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신약성서 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랍비 유대교를 살펴보았고, 교부 시대의 초기 교부들을 살펴보았으며, 종교 개혁으로의 도약을 매우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핵심 특징 중 하나가 해석자들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모든 방법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것을 가공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계속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반드시 발생하지 않는 해석에 대한 몇 가지 영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해석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또는 고립되어 본문을 읽을 때, 앉아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긴 흐름의 일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앉아서 텍스트와 씨름한 수많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읽는 방식,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개인과 다른 많은 운동의 생각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 일부는 반드시 성경 본문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어떤 본문이나 책 해석을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법,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주요 영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그림을 간략히 살펴보고 특히 계몽주의 시대로 알려진 시기에 몇몇 주요 개인과 그들이 가졌던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 과학적 데이터이든 텍스트이든 무언가를 이해하는 방법, 무언가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성과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높이 평가되었던 때.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인데, 초기 과학사상가인 베이컨은 귀납적 과학적 방법론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일종의 합리주의, 즉 생각하고 추론하는 인간 정신의 능력을 강조하여

텍스트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산물이었습니다. 베이컨은 과학적 데이터를 경험적으로 엄격하고 자세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통역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기타 영향이 해석과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데이터를 연구하고 정보를 연구하는 관찰자라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데이터를 보고 편견이 방해되지 않도록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역사적 증거와 역사적 사실을 고찰함으로써 올바르게 엄밀한 방법을 적용하면 그 사실을 지배하는 법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컨이 한 것은 우리가 전통과 단절해야 하고 그 대신 전통을 의심해야 하며 데이터 자체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는 엄격한 방법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지배하는 법칙과 그 사실의 의미,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대한 귀납적 연구를 강조하는 대중적이고 때로는 학술적인 성경 연구 내의 특정 운동에서 유사한 영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해석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데이터를 엄격하게 조사함으로써 데이터의 진정한 의미를 밝힐 수 있고,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텍스트도 그 의미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해석자는 객관적인 관찰자라는 점을 강조하시며, 우리는 본문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단순히 사실만 보고 거기에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관찰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이성과 사고방식을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고, 텍스트가 말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편견, 성향, 과거의 전통 등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해석학 본문은 여전히 귀납적 해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귀납적 성경 연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는 훨씬 더 인기 있는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하자면, 나는 객관적인 관찰자입니다. 나는 데이터를 흡수하기를 기다리는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올바른 해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나는 방해받지 않고 그 진정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내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성경 해석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 접근 방식의 일부로서 엄격한 해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편견을 초월하거나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상가였습니다. 순수하고 경험적이며 귀납적 유형의 방법으로 데이터 종류를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상가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 1596년부터 1650년까지. 데카르트 역시 베이컨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합리주의의 산물이었으며, 지식은 논리적 추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즉 인간의 마음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자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물질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 역시 의심의 입장에서 행동했다. 즉, 과학자나 철학자는 선입견, 선입견과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제거하고 편견과 가정을 제쳐두고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아는 것과 현실 자체 사이에 대략적인 상관관계, 즉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작업했습니다. 즉, 합리적이고 경험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과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책을 볼 때, 내가 관찰하고 보는 것, 내가 아는 것과 관찰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 실제 현실 자체 사이에는 일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중립적인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귀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귀납적 방법으로 이해에 접근함으로써 우리는 데이터에 순수하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해석학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가능한 영향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 영향을 받아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접근할 수도 있고,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며, 또한 올바른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 방법은 엄격한 해석학 방법을 통해 실제로 성경 본문 자체에 해당하는 해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해석에 도달할 수 있고,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텍스트의 의미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텍스트에 있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 자신의 편견, 나만의 관점, 나만의 전통, 나만의 관점에서 분리됩니다. 엄격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중립적인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데이터를 흡수하기를 기다리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해석학에 있어서는 적어도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예시한 합리주의의 방법과 접근 방식이 해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한 번, 해석학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은 전제와 편견을 버리고 텍스트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며 올바른 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거나 배우거나 읽었다면, 당신은 편견을 극복할 수 있고,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의 대부분은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접근 방식으로 예시되는 합리주의 시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해석학에 있어서 그들이 남긴 유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에 대해 말할 몇 가지 다른 점은 그가 남긴 유산과 그가 가졌던 영향력, 심지어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데카르트는 나중에 해석학과 해석에서 매우 중요해질 이원론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이원론은 이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데카르트는 기계적이고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질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데카르트는 사상가, 이성적 사상가의 자유와 자율성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자아,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자아라면 이것은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는 그것에 대한 나 자신의 해석, 또는 나 자신의 관점과 관점에 어느 정도 의존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까지 결정합니까?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미 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한 가지, 이 접근 방식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해석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식의 길을 닦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이고, 텍스트에는 정확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해, 생각, 편견, 전통, 관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그 내용을 본문에서 읽을 것입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이미 기계론적 우주와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자아 사이의 이원론을 통해 이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다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내가 보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결정하고 내 접근 방식은 내가 보고 인식하는 것을 결정합니까? 데이터에? 이 기간 동안 강조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은 아마도 해석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많은 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할 것은 회의론, 데이비드 흄의 회의론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조해야 할 개인은 성경 해석이나 해석학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반영하는 진술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간략하게 언급할 개인은 John Locke, LOCKE, John Locke, 1632~1704입니다.

로크는 마음은 빈 판이며 외부 세계로부터 감각을 받는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외부 세계의 경험적 세계로부터 감각과 데이터를 받기를 기다리는 백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나는 베이컨이 말했듯이 해석자가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백지 상태인 순전히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 수많은 해석학 교과서, 특히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순전히 귀납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흡수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로크 입장의 어려움 중 하나가 나중에 다른 해석가나 다른 해석학 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용어는 해석학에 대해 적용하거나 생각하고 쓰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내 마음이 백지이고 단순히 백지판이라면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 이해하려면 몇 가지 범주나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크를 넘어 다음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개인, 아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그룹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개인입니다. 1724년부터 1804년까지 살았던 임마누엘 칸트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회의론에 어떤 면에서 반응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가 대답한 회의론자 중 한 명은 인간 지식의 확실성을 전혀 의심한 David Hume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칸트는 이러한 회의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지식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객관적 현실은 칸트에 따르면, 객관적 현실은 마음의 지식 구조에 부합할 때만 알려지고 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데카르트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기억하세요, 데카르트는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자율적 사고 자아 사이에 이원론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칸트는 더 나아가서 객관적인 현실은 이미 마음 속에 존재하는 범주와 이미 마음 속에 있는 구조 때문에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사물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방식, 사물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대신, 나의 모든 지식은 마음의 구조와 인간 마음의 이해 범주(예: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간 범주, 공간 범주)를 통해 필터링되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적 세계를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베이컨과 데카르트에 따르면, 아마도 사람은 대상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과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나의 이해와 아는 것과 대상 자체의 본성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칸트는 마음, 즉 마음의 구조가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책을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사고와 이성적 마음의 범주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의 이해는 이해의 패턴, 즉 이미 인간 마음 속에 있는 범주를 통해 필터링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이컨에 따르면, 특히 데카르트에 따르면 마음은 데이터를 실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칸트는 마음, 마음의 구조가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세상이 보이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구조는 세상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두 개의 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인과성 사이에 이원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마음의 자유와 인과성, 즉 결정론입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칸트에게 자유의 극에는 신앙, 종교, 신 같은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인과의 극인 반면 극의 반대편은 시간과 공간, 역사의 과학적인 세계였다. 그리고 칸트에 따르면 둘 다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과학과 역사, 외부 세계에 관한 과학적 탐구 방법에 따르면 신앙과 신과 종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결정론적인 세계, 그리고 신과 신앙, 종교를 포함하는 자유의 극 사이에 이원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러한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 나의 신앙, 종교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초월적이며 심지어 사실과도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와 과학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영역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이는 역사에 기적이나 신의 개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극을 별도로 유지하십시오.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종교적 사상, 신과 신앙의 영역과 혼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이 개인적인 것이고,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임을 봅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한 이것을 봅니다. 제 생각에는 구약과 신약 연구 모두에서 신앙과 역사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분법, 특히 19세기와 19세기의 자유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이분법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고의 유산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20 세기.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학과 역사의 분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역사적인 문학이 아닌 종교 문학, 신학 문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온 나라가 건널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은 확실히 사실일 수 없으며 확실히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역사가 아니라 신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신학을 쓸 때 반드시 역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과 역사 사이의 이분법, 또는 다시 복음 비평에서, 또는 구약 비평에서 신학과 역사 사이의 이분법에서 칸트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신학 문서를 쓰고 있다면 확실히 그들은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 저술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칸트에 따르면 지식은 텍스트의 감각적 인상을 바탕으로 한 경험으로 구성되며,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를 구성하고 세계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범주를 통해 이해됩니다. 그리고 다시 칸트가

강조하는 요점은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와는 달리 우리는 결코 사물을 독립적으로 알 수 없으며 사물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내 마음의 격자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의미와 이해는 이 그리드를 통해 필터링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자아,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아인 내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사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있지만, 사물이 객관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나 그 자체로 어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칸트는 자신이 대응하고 있던 회의론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면, 어떤 것에 대한 나의 인식과 지식이 사물의 실제 방식과 무관하다면, 내가 아는 것과 사물의 방식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칸트는 자신이 대응했던 회의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 역사, 과학적 지식에 있어서도 초자연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교, 신 등.

과학, 역사 등은 닫힌 기계론적 우주에 속하는 반면, 다른 극, 즉 자유의 극에 속합니다. 그러나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칸트는 의미와 지식의 주요 원천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자율적 사고를 하는 자아를 통해서 자율적 사고 자아가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칸트의 경우에는 마음의 격자, 즉 이미 마음 속에 있는 범주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대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칸트의 유산은 해석자가 의미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자, 즉 아는 자아가 의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듯이 칸트는 어떤 의미에서 독자를 강조하는 해석학에 대한 보다 현대적인 접근 방식, 독자 중심 접근 방식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의 맨 처음에 해석학은 해석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가이고, 텍스트이며, 독자이다. 저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 저자 중심 접근 방식입니다.

의미의 장소인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 중심. 그리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춘 독자 중심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칸트는 해석에 대한 보다 포스트모던적인 접근 방식과 텍스트를 이해하는 독자에게 초점을 맞춘 보다 독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의미는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추상화하는 텍스트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유일한 의미는 저자, 독자가 마음의 범주를 통해, 우리가 텍스트에 가져오는 전제와 편견, 관점을 통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 이미 예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산은 우리가 이미 제안한 것처럼 과학, 역사 등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 사이의 분리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고, 역사 문제에 대한 신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다시 부활도 없고, 온 민족이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는 것도 없고, 기적적인 사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칸트의 유산은 신학-역사적 분리이다. 만약 오래된 신약 성서 저자들이 신학을 쓴다면 그들은 반드시 역사를 쓰거나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의 일부는 역사와 과학의 진실과 종교와 신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서 진실인 것 사이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이것을 그린 칸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저는 칸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해석학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살펴본 프란시스 베이컨, 르네 데카르트, 존 로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칸트의 기여를 요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이 기간 동안 해석학에 똑같이 중요한 기여를 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해석학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아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 데이터든 서면 텍스트이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개인은 해석학과 해석학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칸트뿐만 아니라 다른 베이컨과 데카르트, 그리고 존 로크에 대한 몇 가지 추가 관찰은 무엇보다도 특히 칸트가 우리에게 순수 귀납법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순전히 객관적인 통역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방법론과 올바른 기술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어떻게든 정보를 흡수하기를 기다리는 빈 서판에 불과한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해석과 텍스트 자체의 대상 사이에 일대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자와 객관적인 해석자는 없다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이해, 성향, 편견, 배경 및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 과정의 후반부에서 다루게 될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는 방식을 필연적으로 왜곡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이해할 희망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미가 단순히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텍스트에는 정확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확실히, 우리는 이것이 해석학적 사고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연역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백지 상태로 흠뻑 젖기를 기다리고 있는 객관적인 관찰자입니다. 데이터를 흡수하기를 기다리는 마른 스펀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순수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칸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주장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마음. 그러므로 신은 우주의 창조자이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은 그러한 구조를 칸트가 설명한 범주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멍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창조하신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 속에 구조와 범주와 격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 해석가는 타락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해석자, 대부분의 기독교 해석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제안하고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들 개인의 공헌을 요약하면 우선 칸트와 데카르트, 베이컨과 존 로크의 유산은 경험주의와 인간 이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고 엄격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나의 지식과 사물의 존재 방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존 로크에 따르면, 엄격한 방법이나 방법론을 적용하면 모든 편견 없이 빈 마음으로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접근 방식을 흔히 상식적 현실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용어나 문구입니다.

둘째, 임마누엘 칸트는 합리주의와 이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미의 중심으로서 자율적 인식자기, 자율적 사고자기를 더욱 강조했다는 점에서 약간 거리를 두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칸트의 경우,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거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해낸다고까지 말하지 않고, 인간은 이미 범주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구조.

마음은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그리드입니다. 마음 속에는 이미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있는 방식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과 이것을 아는 것과 그것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실제로 어떤지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칸트는 자신이 반대하는 회의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셋째, 그러므로 칸트는 생각하는 자아와 해석의 대상 사이의

구분 모두에서 이후의 해석학적 사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독자 중심 접근을 기대하면서, 다시 의미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지막 것, 그의 신앙과 역사의 분리, 또는 그의 신학의 역사 분리, 다시 말하면 성경 저자들이 신학을 쓴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역사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산물인 그러한 개인들은 인간의 추론,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사고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 프리드리히 쉴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1768년부터 1834년까지 살았습니다. 19 세기.

쉴라이어마허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으며 신학, 해석학, 성서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신학의 아버지, 해석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chleiermacher로 돌아가서 여기서 그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해석학에 대한 그의 생각과 기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논의할 때 우리는 그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Schleiermacher는 아마도 저자의 의도를 논의하는 핵심 인물일 것입니다. 저자 중심, 기술 중심, 독자 중심의 해석 접근 방식을 기억하세요.

해석의 주요 목표로서 작가 의도 의 아버지인 Schleiermacher로 돌아갑니다 .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접근한 방법과 설명하는 방법에 반드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그를 저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해석학의
 아버지로 볼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지만
 해석학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Schleiermacher는 또한 계몽주의 시대의 어린이로서 인간 추론의 힘,
 사고의 힘, 실제로 무언가를 아는 인간 이성의 능력을 강조한 글을 썼습니다. 즉,
 믿음은 이성과 과학기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Schleiermacher는
 신앙, 추론, 과학에 대한 강조에 반응하여 지식에 대한 합리적 접근 방식과
 과학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우리가 제한될 수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슐라이어마허는 단지 합리적 진리와 당시의 신학적 교리에 맞서
 지식 추구에 있어 창의성과 경험, 경건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그에게 해석학은
 인간의 사고와 언어의 본질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통해 발전된 이해의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Schleiermacher에게 있어
 인간의 사고, 창의성, 정신 경험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이해와 해석의 주요
 목표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 또는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를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 그것이 바로 인간 작가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석가와 텍스트를 생산한 저자 사이의 격차는 해석학을 통해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인간 작가 사이의 거리를 극복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해석학입니다. 따라서 Schleiermacher에 따르면 주요 작업은 작가의 과거 행위를 가능한 한 가깝게 재구성하거나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Schleiermacher에 따르면, 예, 우리는 텍스트의 문법,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 단어 등을 보지만 그에게 해석은 주로 심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의 철학적 이해 때문에 그에게 주요 목표는 텍스트를 넘어서 작가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작가의 입장에 자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 작가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자의 입장, 즉 저자의 마음 속에 우리 자신을 놓을 수 있고, 성경 본문을 쓰면서 저자의 진정한 의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어마허는 해석학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은 단순히 텍스트를 관찰하고 올바른 해석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가 무엇에 대해 심리적으로 질문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작가의 과거 행위와 작가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당시 프레데릭 슐라이어마허(Frederick Schleiermacher)의 유산 중 첫 번째는 작가의 의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석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석학은 저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나 텍스트 뒤에 가서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 Schleiermacher에서 시작된 저자의 의도를 회복하는 접근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읽은 수많은 해석학 교과서나 성서 해석 교과서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해석의 주요 목표는 저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해석학 교과서의 정확한 인용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는 단순히 저자를 이해하고 저자의 의도를 재구성하기 위한 창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날,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록 우리가
슐라이어마허와는 다르게 접근할지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해석가들, 특히
복음주의 해석가들은 해석의 주요 목표가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입니다. 본문의 주요 의미는 저자가 의도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나중에 저자, 텍스트, 독자 중심의 해석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이에 대해 다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해석의 목표가 저자의 의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옹호했습니다. 해석학에 영향을 준 Schleiermacher
사고의 또 다른 측면은 종종 해석학 순환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Schleiermacher는 텍스트를 읽을 때 개별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고,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Schleiermacher에
따르면, 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체와 부분 사이를 오가며 이 순환을 통해 작업할 때 이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텍스트에 대한 저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것들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해석학에 영향을 미친 지식과 이해에 대한 비성경적인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프란시스 베이컨과 그의 귀납적 과학적 방법, 르네 데카르트와 그의 합리주의와 과학적 방법으로 돌아가서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무엇인가를 아는 능력을 강조하는 자율적 사고 자아, 존 로크는 우리가 무언가를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사물을 관찰하는 백지 와, 데이터에 대한 감각적 인식과 경험으로 채워지는 백지. 그리고 이성적 사고의 자아, 자율적 사고의 자아, 이 모든 것이 계몽주의의 자녀임을 강조한 임마누엘 칸트에게. 그러나 동시에 칸트는 자율적 사고 자아를 도입하는데, 이는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아는 것이 걸러지고 인간 정신에 이미 존재하는 범주와 구조에 의존한다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Schleiermacher, Friedrich Schleiermacher는 이제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방법에 반응하면서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경험과 경건함과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석학의 목표는 이제 텍스트 뒤에 숨은 작가의 의도를 심리적으로 회복하여 작가의 사고 과정과 작가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해석학에 접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에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해석학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성경 해석자들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현재와 역사적 운동,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외부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씨름하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우리는 텍스트 같은 것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해석학 교과서와 성경 해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의 일부로서 이러한 인물들을 넘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신학, 철학, 해석학에 관한 좀 더 최근의 사상가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 본문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인 Hans- Gurg Gadamer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우리의 해석학적 뿌리, 즉 오늘날 구약성서의 성경적 해석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 일부 영향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